

제목: 이민 수용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

서론: 현재 우리의 곁에는 알게 모르게 이민자들과 난민자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뉴스에 관심이 있고 또 자주 챙겨 보는 사람들이라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탈레반으로 인한 아프간 난민들의 수용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기사들과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실제 한국일보의 강준구 기사가 쓴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수용 문제 기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난민 수용 문제에 예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난민 수용을 먼저 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자들로 인한 범죄 사례가 수차례 일어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수용문제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는 중이다. 찬성자들은 인도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의 의견을 펼치고 있고 반대파들은 난민자들의 범죄 사례를 극단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때 난민과 이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며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본 글에서는 난민 측에 접근하여서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립에 대한 근거와 주장을 제시하며 글을 이어나가 보겠다.

본론: 위에서 제시한 난민 문제를 나는 찬성의 입장으로 본다. 왜냐하면 아래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우선 2020년 12월 유엔 난민기구가 한국리서치와 공동 조사를 한 결과 53%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고 33%의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극심한 반대파들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포용이 없는 채 비수꽃는 혐오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로 수용한 아프간 난민들은 모두 아프간 공판과 병원, 직업훈련소 등에서 함께 일한 한국에 도움을 준 사람과 그 가족들이다. 자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 호의적으로 대하고 또 한국에 도움을 줬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국이 위험을 받아 난민을 왔을 때 한국인 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며 또한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북한국이 무력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불법 남침해 일어난 6.25 전쟁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때도 수많은 유엔군 측 국가들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 물자 지원을 받았고 그 덕에 지금의 우리나라 재건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은혜를 지금의 난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이다. **난민보호는 국제사회 연대의 기본 바탕이 되며 우리 국민들이 세계시민주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를 겪고 현재 분쟁국가에 있어 언제 우리가 난민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난민 수용에 한발 나아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난민 수용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는 아프간 난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난민자들로 인한 범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확실하지 않은 난민자들의 범죄 사례만 따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난민자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된다면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벗 측면에서 크게 벗어난다. 또한 이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근거는 국제 사회와 난민 협약을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진국이며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각종 인도주의적 위기들을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도의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책임감은 내전 주변국 또는 내전 중인 나라로 떠넘기려 드는 잘못된 인도주의를 그대로 본받자는 것이 된다. 실제로 “American First”를 외치며 자유주의 입장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서방 진영의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반대로 여러 정치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해 이성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서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 또한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난민 위기는 환경 문제만큼이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각국이 정치적인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 오히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인권과 인도주의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곧 후발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내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 의정서'와 '난민 협약'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 난민 의정서란 11개 조로 이루어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가입되었다..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우리나라는 난민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 2(반론과 재반론): 위에서 나타낸 나의 주장인 이민 수용에 대한 찬성적인 근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의 주장과 근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민 수용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그들이 이민 수용에 찬성한다는 근거에 말할 수 있는 반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난민자의 **범죄 사례**와 **자국민의 일자리 침탈**에 관하여 반론을 들 수 있다. 우선 범죄 사례에 대한 반론 첫 번째는 1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파키스탄인 범죄자 검거율이 증가하였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파키스탄 이민자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반론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한 내용을 살펴보면 난민을 받은 독일에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독일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그에 관련된 독일 이민자 범죄율이 증가한 통계 표시를 제시하였다. 이 이민자 범죄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하자만 우선 첫째 1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파키스탄 검거율이 상승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조직범죄 때문이었다.. 이런 식의 조직범죄가 구성되면 내국인도 검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이것이 이민으로 인한 증가다, 혹은 외노자에 의한 증가라고 보기엔 어렵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2015년 독일에서 대규모 난민 이동이 시작된 2015년도부터 보면 범죄자 수가 급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살펴보면 인구가 급증하던 2015년 이후로 점차 독일의 인구 대비 범죄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1992년 이후 독일의 최저 범죄 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난민의 대규모 유입 초기에는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두 번째 자국민 일자리 침탈을 주장하는 이민 반대론자들은 그들은 제주 예멘 사건을 예시로 들며 제주도는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통해 가짜 난민으로 위장하여 들어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 난민으로 위장한 기자가 브로커와 이야기 한 내용을 살펴보면 134만 원으로 G1이라는 난민증을 사서 서울 취업을 보장한다 했으며 난민에게 경제적 이주를 부추기는 사람 또한 브로커들이다. 이처럼 이민 반대론자는 제주 예멘 사건을 예로 들며 이민 수용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입국한 이민자들은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출도 제한 조치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산가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한 예산과 인프라, 그리고 난민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를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입국 초반에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았다. 만약 난민자들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주에서는 예멘 난민에게 일자리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농어업에 관한 일자리에 국한되어있다. 또한 난민으로 가장한 기자와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 유출되었지만 실제 예멘 난민 중 브로커를 통해 가짜 난민으로 들어왔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민 수용 반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주장에서 보면 실제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이 일으킨 범죄 사례나 일자리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자 들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 나는 이민 수용의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두고 두 가지 근거를 들며 이민 수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이민 수용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민 수용의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사례만 예시로 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에 범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반대론자들이 모르는 지식과 정보를 공익광고로서 각 학교에서 대회를 열고 시상하고 상금을 걸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려지게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이민 수용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민에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분단국가인 우리가 후에 이민자가 될 경우 수용국들이 다수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이민에 큰 귀를 기울이는 첫 단계를 나아가야 한다.

SBS뉴스, 난민은 범죄를 더 저지를까?, 2021년 9월 8일 수정,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youtu.be/s2eFu7ufvjs>

향기나는널순, 난민 수용 찬성 및 반대 근거 정리 모음, 2019년 12월 10일 수정, 2021년 11월 1일 접속

<https://blog.naver.com/yolb1988/221732779873>

김시훈, 난민 수용 작년 여론조사 반대 53% 찬성33%...“아프간 난민, 염전 보내라” 반난민정서도, 주한 미군 주둔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용은?, 2021년 8월 24일 수정, 2021년 11월 28일 접속

<https://blog.naver.com/violin21/222481743686>

김재유기자, 한국수용 결정된 아프간난민 428명 '충북 진천'에 머문다, 2021년 8월 25일 수정, 2021년 11월 15일 접속

<https://www.insight.co.kr/news/355187>